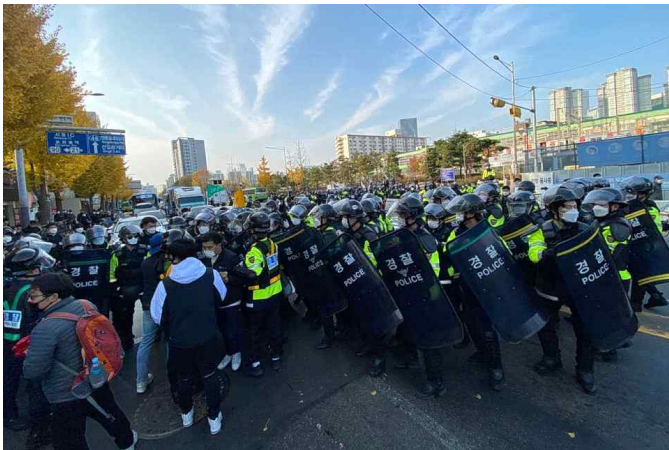


“경찰, 방역지침 어겨. 밀집대형 고착·진압, 사복체포조까지”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금속 결의대회·행진... “민주노조 정조준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결행”



민주노총이 11월 14일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와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각 지역본부 등 가맹 산하 조직들은 민주노총 여의도 본무대 외에 서울 14개 거점과 각 지역에서 동시에 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과 대방역 앞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 노조 경기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지부가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여의도 KBS 앞까지 행진했다. 대방역 앞에 노조 서울지부와 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현대자동차지부가 모여 영등포교차로를 지나 여의도 KT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노조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행진을 벌였지만, 경찰의 과도한 대응으로 한때 행진 대열이 멈춰 서기도

했다.

노조는 방역지침에 따라 조합원 99명만 행진에 참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도를 이용해 행진 대열을 따라가려고 했다. 경찰은 “다른 조합원들이 행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으로 인도에 있는 조합원들의 이동을 막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어겼다. 방패를 앞세운 경찰 기동대는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대열 주변 인도에 있던 노동자들을 밀집대형으로 고착했다. 형사임을 나타내는 검은 조끼를 입은 사복체포조들도 경찰대열 안에서 밀집해 노동자들의 동태를 살폈다.

경찰은 게다가 노동자 행진대열에 많은 수의 경찰을 노동자 옆에 뺨짝 붙여 물리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다시 위반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서울남부지청

앞 금속노조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당 대표 약속을 정책위 의장이 뒤집는 민주당”

김호규 위원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노동 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런데 며칠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에 의원은 이를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자, 시민이 직접 발의하고 민주당 대표가 약속한 법안을 정책위 의장이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호통쳤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 민주노조를 정조준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는 즉시 이미 결정한 대로 총파업을 벌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여전히 기계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계속”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라고 절규하며 항거한 지 50년이 지났다. 11월 13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노동자, 시민이 모여 ‘2020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 을 열었다.



수상했다. 전태일노동상 심사위원회는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수상 이유에 대해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만든 투쟁, 공짜노동이라 불렀던 택배 분류작업에 원청의 인력투입을 이뤄내는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왔다” 라고 설명했다.

추도식은 임진택 명창과 한국민족춤협회, 경기민족굿연합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소선합창단의 노래에 맞춰 민중의례를 진행하고 각계의 추도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를 통해 “50년 전 오늘 스스로 불의와 불평등의 억압사회를 태우는 불꽃이 된 전태일 동지의 마지막 외침은 ‘인간선언’ 이었다” 라며 “전태일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다. 불평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노동자,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 있다” 라고 50주기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열사는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라고 외쳤는데, 지금은 지킬 근로기준법조차 없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쳤지만, 지금 노동자는 기계 같은 사람이 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가 발의한 노동법이 개정안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얼마나 심각한 해를 끼칠지 정부는 잘 알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도식에 참석해 열사를 추모했다. 이재명 지사가 연단에 오르자 현장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당은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열사가 통곡한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라고 외쳤다. 이 지사는 “민주당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깊이 새기겠다” 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전태일 재단은 이날 추도식에서 28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단체상은 전국택배연대노조가, 개인상은 노동가 작곡가 김호철 동지가

김호철 동지에 대해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조건을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게 한 계급적 자각을 노래로 열었다. 노동자 대오의 진격을 알리는 개막곡이었다. 삶 또한 노동현장과 이 땅의 민중 속에서 헌신한 활동이었다” 라고 전했다.

추도식은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의 유족인사와 추도식 참석자들의 헌화로 마무리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 앞서 한국가스공사, 현대중공업, 한국산연, 한국지엠,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 전태일들의 약속, 비정규직 결의대회’ 를 열었다.

전태일 열사 묘역 앞에 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19 재난 시기에 가장 먼저 해고되는 현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규탄하고 투쟁을 결의했다.